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4호

체육시민연대
정기총회 안내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강원 개최...뜨거운 경기장, 차가운 관중석

노지영 KBS 기자

현대판 착취 보고서: 조선대 농구부를 둘러싼 의혹들

스포츠윤리센터, 전국 대학운동부 비리·인권침해 집중 신고 접수

김수진 노컷뉴스 기자

각종 수영대회 심판비 정상지급 후 "찬조해 달라"

[단독] 고성군 수영연맹도 체육행사 보조금 '돌려받기'

박유제 데일리한국 기자

[아오아오 하얼빈]

조직위 미숙한 운영과 체육회 능력 대처...비인지 종목 산악스키의 비애

장필수 한겨레 기자

한국야구의 뿌리, 고교야구의 현실

[강남시선] 프로야구 천만관중 시대, 고교야구도 관심을

정명진 파이낸셜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시민연대 2025년 정기총회 안내

안녕하세요, 체육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2025년 2월 25일(화) 오후 4시
2. 장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3. 참가대상: 체육시민연대 회원, 체육 활동 및 사회 참여에 관심 있는 시민
4. 주요 안건
 - 개회 및 인사말
 - 2024년도 활동 및 재정 결산 보고
 -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추진 전략 발표
 - 기타 안건(회원 제안 안건 및 자유 토론)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총회 개최 7일 전(2월 18일)까지
sports-cm@hanmail.net으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우리 조직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모든 회원이 함께 소통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이

체육시민연대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회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체육시민연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강원 개최... 뜨거운 경기장, 차가운 관중석

앵커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내일(11일) 공식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일부 종목은 대회 사전경기도 이미 펼쳐지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열정과 달리 대회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장애인아이스하키 선수들이 퍽을 두고 격렬한 몸싸움을 이어갑니다.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사전 경기 현장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경기장과 달리 관중석은 텅 비었습니다.

휠체어 컬링 경기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명 남짓이 경기를 지켜봤지만, 대회 관계자를 제외한 순수 관중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김은기/관람객 : "관객이 없을 거란 예상은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좀 아쉬웠고 장애인 체육은 비인기 종목이라고 치더라도 너무 사람들이 없으니까..."]

장애인 대회에 대한 관심 부족에다 하계 대회보다도 인기가 없는 대회 특성 탓입니다.

비장애인 대회보다 앞서 장애인 대회를 치러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한 시도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아시안게임과 개최 시기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오는 14일까지 강릉과 평창 등 강원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전국에서 장애인 선수와 임원 천여 명이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정기/강원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 "동계스포츠에 장애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 상황들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앞으로 5년간 매년 강원도에서 독점으로 개최되는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스포츠인들뿐이 아닌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함께하는 대회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전국 대학운동부 비리·인권침해 집중 신고 접수



전국 대학운동부 금품수수 등 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집중 신고기간 '25.2.10.(월) ~ '25.2.28.(금) / 3주간

▶ 신고대상 전국 대학운동부 재학중인 학생선수, 졸업자, 학부모 등
*익명 또는 가명, 제3자 신고 가능(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 신고내용

예시 금품수수 등 비리 및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 기금/회비 불투명 운영,
학교운동부 회비 및 장학금 부정 지급·관리,
학생선수 부당 동원 행위, 학생선수 인권침해 및 부당대우,
학교운동부 관련 민원 은폐·조작 등



1. 대표번호 : 1670-2876(연결후 1번)
 2. 이메일 : with@k-sec.or.kr
 3. 카카오톡 채널 : 스포츠윤리센터
 4. 홈페이지 : <https://www.k-sec.or.kr>
- *증빙자료 제출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오는 10일부터 '전국 대학 운동부 대상 집중 신고 기간'을 진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6일 전국 대학 운동부 대상 금품수수 등 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중순부터 CBS노컷뉴스가 단독·연속 보도해 알려진 '현대판 착취 보고서: 조선대 농구부를 둘러싼 의혹들'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대학교 운동부 회비 및 선수 지원금 가로채기 등 회계 관련 비리 의혹과 함께 임의단체 대회 강제 동원 및 민원 은폐 의혹 등 학생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도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전국 대학 운동부 내 비리 및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4에 따라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집중 신고 기간은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동안 이어진다.

신고 방법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www.k-sec.or.kr), 대표번호(1670-2876), 이메일(with@k-sec.or.kr), 스포츠윤리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단독] 고성군 수영연맹도 체육행사 보조금 '돌려받기'

경남의 체육단체들이 운영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체육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보조금의 정상적 집행 및 정산을 위해 경남도체육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창원시불링협회가 경기 심판들에게 지급된 심판비를 되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고성군 수영연맹도 '찬조금' 명목으로 심판비를 돌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고성군수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를 비롯해 고성군수배 학생수영대회, 고성군수영연맹회장배 수영대회, 고성교육장배 유소년 수영대회 등 4건의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성군은 고성군체육회를 통해 수영대회를 주관하는 고성군 수영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맹은 수십명의 경기 심판들에게 하루 10만원 정도의 심판비를 지급해 왔다.

대회가 끝나면 수영연맹은 심판 1명당 심판비외 활동 인원 및 개인통장 입금 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을 정산해 고성군체육회에 제출하고, 이는 고성군에도 보고된다.

하지만 고성군 수영연맹은 대회가 끝난 뒤 심판들의 단체대화방에 심판비를 찬조해 달라며 연맹 통장 사본을 게시했고, 여러 명의 심판들이 '입금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대화방 캡처화면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고성군 수영연맹 회장을 맡았던 A씨는 데일리한국과의 통화에서 "심판비는 보조금이 아니라 운영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판비를 돌려받은 것도 관례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성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단체가 되돌려받는 것은 위법적 요소가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성군체육회 관계자도 "어떤 명분으로도 심판비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뒤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위 미숙한 운영과 체육회 능력 대처... 비인지 종목 산악스키의 비애

“지금이라도 (체육회와) 소통이 되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산악스키 국가대표 김하나는 전날(9일) 중국 헤이룽장성 야부리의 산악스키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얼빈겨울아시안게임 여자 스프린트 준결승 경기 도중 내리막길을 타다 발목 골절상을 입고 경기를 포기해야만 했다. 생애 첫 아시안게임 출전이자, 태어나 처음 달아본 태극 마크였지만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12일 예정된 혼성 릴레이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불의의 사고였다. 김하나는 도핑 검사를 이유로 자신을 붙잡은 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관계자 때문에 같은 조 경쟁자들보다 늦게 준결승 경기를 시작했다. “경기 때문에 (대회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지만, 조직위 관계자들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그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녔다. 경기 준비 시간을 허무하게 날린 김하나는 홀로 급하게 출발했고, 조급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다가 하산 구간에서 부상을 당했다. 조직위와 도핑검사 기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그 여파가 한국 산악스키 대표팀에 미친 것이다.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선수가 먼저 출발한 상황을 놓고 산악스키 대표팀은 현장 심판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대한체육회에 이를 알렸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다음 날인 10일까지 조직위는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전날 밤 10시께 “이번 사건을 접한 뒤 항의 서한을 작성하고 있다”라고만 밝혔을 뿐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산악스키 여자 스프린트 준결승 경기는 9일 오전 11시10분께 시작됐는데,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의 서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것이다.

김하나가 9일 중국 헤이룽장성 야부리의 산악스키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얼빈겨울아시안게임 산악스키 여자 스프린트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모습. 임정희 국가대표 코치 사진 제공
김하나가 9일 중국 헤이룽장성 야부리의 산악스키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얼빈겨울아시안게임 산악스키 여자 스프린트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모습. 임정희 국가대표 코치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의 늦장 대처는 한국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비인지 종목인 산악스키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김하나는 의료진으로부터 발목 골절 진단을 받고 간단한 보호대만 착용한 채 호텔에서 대기해야만 했다. 이틀 뒤 귀국해 수술 일정부터 잡아야 했지만, 체육회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김하나는 사고 당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방에 홀로 남아 있다. 휠체어는 반납해야 해서 돌아갈 때는 홀로 목발을 짚고 공항까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체육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침묵했다.

사고 이후 대한체육회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던 김하나는 한겨레 보도가 나간 뒤에서야 체육회로부터 “귀국 후 차량과 동행인을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체육회 관계자는 “현지 인력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 상황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 체육회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전혀 아니다. 의사를 급히 보내 김하나 선수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부상 전후로 마음을 졸였던 김하나는 “지금이라도 소통이 돼 다행”이라고 했다.

이번 대회에 첫 선을 보인 산악스키에는 한국 대표팀 6명이 출전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을 가진 동호인으로 휴가를 내는 등 시간을 쪼개가며 아시안게임을 준비해 왔다. 훈련장에서도 스키 등 대표 설상 종목에 밀려 새벽에만 일어나 운동할 수 있었다. 장비 등은 모두 개인이 마련했다. 태극 마크의 소중함을 느끼며 준결승까지 진출했으나, 조직위의 미숙한 경기 운영과 대한체육회의 늦장 대처로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입었다. 태극 마크에 경중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산악스키는 2026 밀라노·코르담페초겨울올림픽 정식 종목이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원과 인력풀을 갖추고 있다.



[강남시선] 프로야구 천만관중 시대, 고교야구도 관심을

한국 프로야구가 지난해 첫 천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과 열기는 이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이 됐다. 치어리더의 응원, 다양한 먹거리, 각종 이벤트가 어우러진 야구장은 더 이상 단순한 스포츠 경기장이 아닌 종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진화했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에서 치어리더로 활동하며 일명 '삐끼삐끼' 춤으로 인기를 얻은 이주은은 올해 대만 프로야구팀으로 옮기면서 거액의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바로 한국 야구의 뿌리인 고교야구의 현실이다.

지난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이전, 한국 야구의 중심에는 화제를 몰고온 고교야구가 있었다. 프로야구 출범 직전인 1981년 대통령배 고교야구 결승전에서 벌어진 최동원(경남고)과 선동열(광주일고)의 투수전은 한국 야구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였다. 연장 15회까지 가는 마라톤 승부에서 두 투수는 각각 248구와 239구를 던지며 끝까지 마운드를 지켰다. 이 경기는 단순한 고교야구 경기를 넘어 한국 야구의 황금기를 예고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어진 고교야구의 부흥기는 한국 야구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대통령배, 청룡기 등 전국 단위 대회가 활성화됐고 TV 중계방송이 시작되면서 고교야구는 국민적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이 시기에 최동원, 선동열 등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이후 한국 프로야구의 기틀을 다지는 주역이 됐다.

그러나 현재 고교야구는 과거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팀 운영의 어려움, 노후화된 시설, 진학과 취업의 불확실성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많은 학생 선수들이 진로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제는 프로야구계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최근 롯데자이언츠와 파이낸셜뉴스가 협약을 맺고 진행할 '명문고 야구열전'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다.

이는 단순한 대회 개최를 넘어 프로야구와 고교야구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야구 문화를 만들고, 젊은 선수들에게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프로야구 구단들은 이제 지역 고교야구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기적인 기술교류, 시설 공유,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다. 이는 프로구단에도 장기적으로 유망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할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고교야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스포츠 혁신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진로지도, 인권 보호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고교야구 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한다.

천만 관중이 보여준 프로야구의 인기는 우리 야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성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고교야구의 건강한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프로야구계는 이제 고교야구를 단순한 선수 공급원이 아닌,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천만 관중의 함성을 고교야구장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야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천만 관중의 성과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발판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할 것인가. 프로야구가 고교야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야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스스로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다.

'2025 롯데자이언츠·파이낸셜뉴스배 명문고 야구열전'이 오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된다. 이 대회가 향후 고교야구 부활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주간 스포츠 소식

부산시 '달밤에 체조' 등 생활체육 공모사업 선정

<https://www.yna.co.kr/view/AKR20250209041900051?input=1195m>

韓 휠체어 컬링, 밴쿠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첫 금메달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210/131001309/1>

용인시, 생활·학교 체육지원 공모 선정...국비4.9억 확보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21008095587878>

국민체육진흥공단, 겨울방학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 운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05111i>

인천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 시공 기준 부적합 '논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10580245>

동해시, 행복한 스포츠 도시 실현...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0052100062?input=1195m>

유승민 체육회장 당선인, 동계AG 현장서 광폭 행보[하얼빈AG]

https://www.news1.com/view/NISX20250209_0003058547

전북체육회 "2036 올림픽과 함께 K-문화 홍보 선도"

https://www.news1.com/view/NISX20250210_0003059145

부산진구,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685196>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